* 예수를 믿는다
*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
* 예수는 주시요 왕이심을 믿는다 => 모신다(섬긴다)

예수란 존재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? 정말 나의 중심과 생명을 내 드릴만한 존재인가 하는것이다.

그리스도의 3중직:

* + 선지자 –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(대신 전하는것)하는자.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(요1:1)
  + 제사장 –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자. (요14:6) . 예수님은 자기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셨다.
  + 왕 – 통치, 보호, 재판
    - 시62:8 =>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므로 우리를 보호 하신다. 그러므로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토해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것을 기대하며 의지하고 기다려라.
    -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므로 우리를 통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재판해주신다.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른다.
    -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문:
      * 예수는 나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. 감사합니다!

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:

* + 성령 + 동정녀 마리아 = 예수
  + 창2:7 => 흑 사람 + 생기(성령) = 생명(살아있는 사람)
    - 그러므로 성령이 빠지만 사람은 흙으로된 사람 몸만 남는다. 그것은 가치가 없는것이다. 즉 사람에게 성령을 빼면 무차치한 삶이 된다.
  + 동정녀 마리아 는 평범한 여자이다. 갈릴리 처녀 이다(시골처녀란 뜻이다).
    - 마리아가 처녀 였던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(“보라 처녀가 아들을 날것이오”).
  + 성령
    - 성령의 능력은 한 인간속에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여 예수의 생명이 탄생하게 하신다.
    - 이것은 우리 삶속에 계속해서 재현된다.
    - 사람 + 성령 = 예수의 생명 이 심겨주고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.
    - 롬8:29 => 우리가 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볻받길 원하신다.